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종정·원로 스님 27명 대상... 5월 31일 해인사서

'대종사 휘장' 도 첫 선, 종단 위계 확립 계기

조계종이 대규모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을 5월 31일 오후 3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이번 품서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2001년 9월 이전 전계대화상이나 원로위원을 지낸 스님들과 현직 원로의원 스님들 등 총 27명이 법계를 품서 받는다.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따라서 법계 중 최상위인 대종사는 최고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을 갖춘, 승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해당한다.

또한 대종사는 종정이나 원로회의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중의 하나다.

품서식에서는 2002년 2월 원로회의의원에 추대된 지혜·조우·진제·혜정 스님과 2002년 3월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고산·밀운 스님 등 대종사 법계 품서 예정인 스님 6명과 관련 법령에 의거 이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법전 종정 스님 및 전임 전계대화상 석주·범룡 스님, 전·현직 원로의원 스님 21명이 법계를 품서 받는다.

품서식은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헌화, 서원, 법계증 수여, 청법계, 종정법어, 가사수여, 발원문, 축하봉정,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 법계증과 가사는 종정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받는 대표 1인에게 수여한다. 특히 가사 수여 시 연꽃 형태에 당초무늬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문양이 있는 '대종사 휘장'도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법계를 품서

한 스님들에게 불자(佛子)를 개별 봉정하고, 전체 대종이 대종사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갖추는 순서도 진행된다.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헌 제26조 ①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64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 한다'와 지난 2001년 9월 10일 개정된 법계법 부칙 제2조(이 법 적용의 예외) '이 법 시행 이전에 품서된 법계와 이 법 시행이전 및 시행당시 종법의 의하여 법계가 요건으로 규정된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 법계를 품서한 것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실시된다.

대종사 법계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중앙종회의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계 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 스님이 행하게 된다.

총무원장 성관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단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던 부분을 이번이 하게 된 것"이라며 "법계를 품서함으로써 종단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종단적 의지가 내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서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들과 중앙종회의장 등 종회 주요 소임자, 각 교구본사 주지, 각급 위원회 위원, 역대 총무·교육·포교원장 및 전국비구회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법계 체계는?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6개월의 행자 생활(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교육 포함)을 거친 뒤 사미계를 받는다. 또 4년 동안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마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비구(니) 법계는 견덕(견덕) 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중덕) 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대덕) 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덕(종덕) 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사(명덕) 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명사) 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 구분된다.

대종사 법계 품서받는 스님들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5월 1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 법전 스님,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봉정식에서 '금강경'과 '아미타경'을 중심으로 한 동판 40경만이 부처님전에 봉정됐다.

법전 스님은 "찰백년 동안 법의 지남(指南)이 되어왔던 고려 목판 팔만대장경이 대한민국의사에 등판으로 다시 조성되어 불법만년 시대를 이어갈 시절인연이 도래하였다"며 "이 동판 팔만대장경을 달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대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세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국보 32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대장경의 활용, '21세기 신대장경'의 조성, 그리고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발원을 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2006년 말까지 3절을 완성해 1절은 해인사에 보관하고, 또 1절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나 금강산 신계사에 기증하고, 1절은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불자대상' 황우석 교수·박세리 선수

조계종이 2004년부터 시행하는 '불자대상' 수상자에 서울대 임상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와 골프선수 박세리 씨가 선정됐다.



황우석 교수

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20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성관)를 개최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학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황우석 교수와 최연소 미국 골프 명예 의전당 가입 자격을 획득한 박세리 선수를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6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서 거행된다.



박세리 선수

불자대상은 조계종이 문화, 예술, 학술, 교육, 복지, 환경, 통일, 국제, 스포츠, 사회봉사분야 등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법의 흥포에 기여한 바가 큰 불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999년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풍이' 연구와 광우병 내성을 지닌 소 개발에 이어,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배양에 성공했다. 미 여자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박세리 선수는 1998년 맥도널드 챔피언십 등 주요 대회에서 총 21회 우승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승가대 새 이사 청화·정님 스님 선임

중앙승가대 새 이사에 청화(조계종 교육원장)·정님(동문회장,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이 선임됐다.

신교법인 승가학원은 5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66차 법인 이사회를 열고, 청화·정님 스님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2003년도 학교회계 결산승인 건'과 '신규임원 선임 건' 등을 처리했다. 법인 29억여원과 학교 26억여원에 대한 전년도 회계 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용수 기자



ON
홈 네트워크 시스템 아파트

자동 제어 가스/냉난방 온도 조절, 실내 온도 자동 조절, 도어 열 수 있음
원격 감청 실시간 사물 영상, 원격 감청, 대문 도어 열 수 있음
정보 가진 내부 도어 7개, 가스, 화재, 비상, 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방범·방재 가스, 화재, 비상, 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CCTV/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공자 사할 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관리 내역 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Intelligent Life - XUI 자이